

古書의 眞僞와 그 年代

< 3 >

梁 啓 超 著
沈 暉 俊 譯

第3章 辨僞學的發達

數 많은 僞書가 있고 僞書속에는 또 數 많은 虛僞의 事實이 包含되어 있는 以上 당연히 學者들의 懷疑를 免할 수 없다. 그러므로 僞書는 戰國時代에 생겼는데 戰國時代의 學者들도 이에 따라서 疑心을 품기 시작했다. 孟子는 戰國 初年の 사람인데, 그는 벌써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책을 다 믿는 것은 책을 가지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나는 武成篇에서 두세가지만을 取한다』 비록 그(孟子)는 仁者의 軍隊가 반드시 虐殺을 많이 하지 않으리란 先入觀을 품었으므로 武成에서 말하고 있는 『血流漂杵¹¹⁾』을 疑心한 것은 理由가 決코 充足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서 當時의 사람들이 漸次로 古書를 믿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戰國末葉 韓非子도 일찍이 諸子百家가 古事를 僞造했다고 懷疑한바 있다. 그는 말하기를 『孔子나 墨子는 모두 堯舜을 말하고 있으나 그 取捨하는 바는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모두 自己가 말하는 것이 진짜 堯舜이라 말하고 있다. 堯舜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限, 누가 儒學과 墨子와의 誠實함을 바로 制定할 수 있겠는가? 비록 어떤 책이 假짜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諸子百家에 제멋대로 전하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明白히 말한 것이다.

다만 이것은 僞書가 僞說에 대한 一種의 懷疑일 따름이고 아직 積極的으로 僞作을 識別해 내는 努力을 하지 않았고, 더우기 一定한 僞作을 識別하는 方法이나 基準이 없다. 그러므로 先秦의 僞書·僞說로서 漢代에 갈지 傳來된 것이 實로 적지 않다. 司馬遷은 漢武帝때에 異說이 紛紛하여 古事가 湮滅됨을 보고 著書함으로써 『一家의 說은 完全히 시켜 六經의 異傳을 厥協하고 百家의 雜語를 整齊』하기로 憤起했다. 그러한 眞僞가 雜出한 史料가 그의 앞에 쌓여 있으니 마땅히

있는 것을 모두 記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된 것을 남기고 僞作된 部分을 除去할 努力을 쓰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는 『百家가 黃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 文章이 바로고 穩當하지 아니하였기때문에』 『古文을 離脫하지 아니한 것이 事實에 가까운 것』으로 치고, 『世上에서는 蘇秦이 異常한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므로 다른 시대의 일로써 이와 비슷한 얘기를 모두 蘇秦에게 부쳐 놓았다』고 하여 그 行事를 列記하고 그 時代를 次序했으며 또한 『말하는 사람들은 「堯가 政權을 許由에게 물려 줬더니, 許由는 받지 않고 이를 蓋恥스럽게 여기어 달아났으며, 夏나라때에 이르러서는 卞隨(譯註: 湯王이 天下를 讓與하려고 하자 그런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稠水에 몸을 던져 죽은 옛날의 高士) 務光(譯註: 憂人, 瞽光·湯이 桀한테 이기고 天下를 務光에게 넘기려 하자, 돌을 안고 簞水에 갈아 앉았다. 그後 400年 武丁때에 다시 나타나 숨었다고 한다. 莊子·太宗師·讓王)이 있었으니』라는 따위는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六藝에서 考證』했으며 『學者들은 七十子(孔子의 弟子중의 優秀한 사람)들은 많이 말하고 있는데 추켜 세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誇張하고 이를 깎아 내리는 사람들은 그 眞實을 毀損시키고 있다. 모두 그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는 言論이다. 弟子들이 적어 놓은 孔氏의 古文이 事實에 가깝다고 했다. 이와 같이 먼저 믿을만한 書籍을 基準으로 삼고 그밖의 百家의 말은 虛僞로 看做하는 方法은 비록 危險을 免할 수 있는 것이지만 先秦諸子의 數 많은 僞書들은 그의 이러한 措處로서 生命을 이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들은 史學의 始祖를 司馬遷이라 할 수 있는 동시에 辨僞學의 始祖 역시 司馬遷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司馬遷 이후로부터 漢代의 學者들은 책의 眞僞에 대하여 이미 明白한 判別力을 가리게 되었다. 漢成帝때 張霸가 102

譯註 11) 書傳武成篇에 나타난 記事를 보면 血流漂杵이란 語彙는 前徒 徒戈, 攻于後以北, 血流漂杵으로 되어 있어 마치 「虐殺이 甚하였기 때문에 흐르는 피에 걸구공이가 뜰 정도였다」는 것이다. (書傳 武成篇)

篇의 尙書를 僞造해 있는데 當時 成帝는 宮中の 藏書에서 百篇의 尙書를 꺼내어 이와 比較해 보고 곧 가져 입을 밝혀 낸 것은, 이 말에 대한 하나의 證據이다.

西漢末에 學界는 今文古文의 論爭이 惹起되어 當時의 學者들은 두派로 짝 갈라졌다. 劉歆은 古文家로서 古文派를 代身하여 辯護하면서 左氏春秋傳·毛傳·逸禮·古文尙書등에 博士를 創立하려고 하였다. 漢, 武帝는 太常博士들로 하여금 이 問題를 討論케 하였는데 이 博士들은 모두 今文家로서 今文의 經典을 믿고 뒤늦게 나온 古文의 經典을 僞造하고 疑心하면서 이에 대한 博士를 두는 것을 首肯치 않았다. 劉歆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어 古文은 孔子가 남겨 준 經典이라고 說明하며 그들이 懷疑하는 것의 不當性을 責하였다. 太常博士들은 씩 怨恨을 품었고, 光祿大夫 龔遂와 大司空 師丹과 王莽의 左將軍 公孫祿은 先後하여 劉歆을 攻擊하였다. 그를 『五經을 顛倒하여 學士로 하여금 疑惑을 받게 한다』고 말했다. 이 懸案은 今文 現在에 이르기까지 解決되지 않고 있다. 究竟 古文의 經典이 모두 僞作인 것인가, 아니면 一部分만 僞作인가 라 하는 點에 대해서 歷代의 學者들은 說法이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즉, 西漢末의 그들 今文家가 늦게 나온 古文을 懷疑하고, 極力 古文의 虛僞性을 辨別하는 方法을 생각해 보았다는 이러한 集團의 辨僞에 대한 作業은 아무튼 貴한 것이라고.

班固의 漢書는, 儒林傳에서만 僞作을 하는 것. 僞作을 가려내는 것에 대한 事情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藝文志에서는 더욱 明白히 說明하고 있다. 즉 文子九篇같은 것에 있어서 班固는 스스로 註를 달기를 『老子的 弟子는 孔子와 時代를 같이 하는데 周·平王間의 史實에 대해 얘기 하고 있으니 依託한 것 같다』 力牧 二十二篇의 註에서는 『六國(譯註: 戰國時代의 여섯개의 諸侯의 나라 齊·楚·燕·韓·魏·趙) 時에 지어진 것인데 力牧의 이름에 依託한 것이다. 力牧은 黃帝의 宰相이다』 孔甲盤盂二十六篇의 註에서는 『黃帝의 史官인데 或者들은 「夏帝孔甲」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모두 잘못된 것이다. 大禹三十七篇의 註에서는 『禹금문의 著作이라고 傳言되지만 그 文章은 後世의 말인듯 하다』 神農二十篇의 註에서는 『六國時의 諸子는 時務에 힘을 기울이고 農業에는 怠慢하였으니 農事에 관한 學說은 神農에게 委託했다』 伊尹說 二十七篇의 註에서는 『그 말이 淺薄하니 아마 依託한 것 같다』 天乙三篇의 註에 『天乙은 湯이라고 말하나, 그말은 殷나라 때의 것이 아니며 모두 依託한 것이다』 黃帝說 四十篇의 註에서는 『迂誕하고 依託한 것이다』 以上에서 例로 든 것과 같이 託古의 僞書는 班固의 識別을 거친

것이 四·五十種類가 있다. 우리들은 班固의 藝文志는 劉歆의 七略에 根據해서 말들어진 것이고, 七略은 劉向의 別錄에 根本을 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니 西漢末에 이미 대단히 發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록 劉歆은 極力으로 늦게 나온 古文을 辯護하긴 했지만.

今文·古文의 싸움은 東漢에 이르러서 漸次로 잠잠해 졌다. 그러나 馬融과 鄭玄이 한창 今文과 古文을 融화해서 三禮·尙書등등을 註解하고 있었을때 鄭玄의 弟子인 監孝存은 根本의 周禮를 믿지 않았으니, 그는 『末世의 「譎亂不經」(詐欺와 慌唐無稽한)의 책』이라고 斷言하면서 十論七難을 專門의 周禮는 眞짜가 아님을 가려냈다. 이 十論·七難은 지금 비록 남아 있지 않지만 僞作을 가려내는 專門書로서는 가장 이른 책이다. 그밖에 何休도 『周禮는 六國의 陰謀의 책』이라고 일찌기 말한바 있고 王充의 論衡은 더욱 懷疑精神을 表現하여 믿을 수 없는 古史를 攻擊하였으며 趙政가 註한 孟子에서는 外篇을 「그 문장이 閎深하지 못하다」고 하여 깎아 버리고 註도 붙이지 않았다』 東漢의 學者들도 僞作을 識別하는데 대단한 힘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三國時代로부터 隋代에 이르기까지 일반 학자들은 모두 清談(空理)과 辭章의 方面으로만 치달렸으며, 考證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특히 懷疑하는 精神이 없었다. 우리들이 만약 儒家方面에서 僞作을 識別해 낸 遺蹟을 얻어 보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原註: 그 사이에는 다만 郭象이 莊子의 外篇과 雜篇에 대하여 懷疑한 일이 있을 뿐이다.) 잠깐 눈을 돌려 佛敎를 研究하는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佛經의 僞書에 대하여 大端한 注意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晉의 道安이 엮은 佛經目錄은 疑心스러운 佛經을 가지고 다른 部門에 編入시키고 이를 「疑經錄」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엮어진 佛經은 모두 僞書에 注意를 기울이고 있다.

隋나라의 衆經目錄은 곧 沙門 및 學士들의 共同編撰으로서 다섯가지 例로 나누고 있는데, 넷째 例는 「疑僞」로서 疑心스럽거나 僞作임이 분명한 佛經으로 專的으로 收錄하고 있다. 이것은 道安의 前例에 依한 것이다. 또 하나 別本衆經目錄은 功門 法經이 든 것인데 三藏을 六部로 나누고 每部를 또 여섯節로 나누었다. 그중 第四節과 第五節을 「疑惑僞妄」이라 불렀는데 여기에는 疑心스러운 佛經을 僞妄한 佛經으로부터 가려내고 있다. 이것은 道安의 佛經目錄과 隋의 衆經目錄에 比較하여 더욱 精細하며 더욱 慎重한 것이다. 이런 點으로 보면, 隋唐間의 佛經目錄學은 最高度로 發達되었

다. 다만 佛經에 若干 疑心스러운 점만 있으면 決코 참된 佛經에 섞이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中唐(譯註·唐代宗元(A·D 766年)年부터 文宗 太和 9(A·D835)年間)에서 編한 開元釋教錄은 그냥 많은 것만 貪낼뿐 辨僞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여 法經이 이미 僞書로 認定하였던 것조차도 參된 佛經속에 編入하는등, 조금도 分別치 못하고 있다. 이로부터 佛經의 辨僞學은 漸次 衰微해진 것이다.

唐代에 있어 經學家들은 師法을 착실히 지킬뿐 스스로 區別하여 取捨할 수 없었고 또 文學家들은 全혀 創作만을 즐길뿐 過去의 遺蹟에는 留意하지 않았었다. 우리가 만약 中唐以前에 切實한 科學精神으로 古書를 研究한 사람을 찾는것이 不可能하니 辨僞學者는 턱옥이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中唐以後에는 氣風이 漸次로 變하여, 모두들 이미 注疏家들이 멋대로 牽強附會했음을 느꼈다. 趙匡·啖助의 春秋에 대한 研究는 이미 師法을 墨守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새로운 方面을 開拓한 것이었다. 모두들 注疏의 답답함을 괴롭게 여겼으므로 經書以外에 다른 古書들, 즉 子書따위로 찾아서 自己의 學問慾을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을 찾아 내어야 하는 것이다. 古書에 대하여 辨別 或은 批評을 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趨勢는 柳宗元을 한 代表로 삼을 수 있다. 柳宗元은 비록 하나의 文學家로서 韓愈와 더불어 名聲을 나란히 하고 있지만 그는 社會·政治에 대하여 韓愈보다 더 강하게 特別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古書를 研究하고 古書를 懷疑하기를 즐겼다. 그는 鵬冠子·亢倉子·鬼谷子·文子·副子등을 모두 僞書로 斷定하고 晏子春秋는 墨子の 무리를 가운데 齊人이 만든 것이라고 斷定하였는바 이는 모두 明確한 것이다. 그러나 柳宗元은 비록 子書의 僞作은 識別해 내었지만 經書는 大膽하게 懷疑하지 못했다. 그보다 더욱 일찍이 古代의 經典에 대해 疑感한이가 있었으니 그는 武則天時代에 나온 史家 劉知幾였다. 劉知幾는 많은 證據를 羅列하여, 尚書·春秋·論語·孟子등의 책이 古史에 대하여 妄測虛增하거나 或은 矛盾錯謬하였음을 지적하고 直接의으로 또 광범하게 五經과 上古의 書는 眞僞가 分別되어 있지 않아 後世를 迷惑하고 있음을 공격했다. 當時와 같이 辨僞學이 衰退한지 오래된 風潮속에서 제일 먼저 學者들에게 自由로운 研究를 引導하고 뒷날의 風潮를 열어 준 것은 劉知幾가 맨 처음이었다. 우리들은 이걸 感服하지 않을 수 없다.

宋代에 이르러서는 辨僞學이 대단히 發達되었다. 宋人들이 學問하는 方法은 根本的으로 漢人과는 틀렸다. 그들은 自己의 見解로 古書를 보았지 訓詁를 그냥 지키

지 않았으며, 스승의 말씀만 전적으로 시키는 態度를 取하지 않았다. 그들의 膽力은 대단히 커서 漢人·唐人들이 敢히 말치 못하던 말을 그들은 敢히 말했으며, 前人들이 이미 論定한 名言이라도 그들은 반드시 믿을 것인가, 못믿을 것인가를 따졌다. 이러한 風潮下에 많은 새로운 見解가 나온 것은 實로 宋人의 特別한 점이었다. 우리들이 그 淵源을 研究해 보면 그들이 啖助·趙匡·柳宗元의 影響을 받았다 함을 認定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宋人으로서 가장 먼저 古書를 懷疑한 者는 歐陽修인데, 그는 易童子問이란 한篇을 만들었다. 易經의 繫詞·文言·說卦·序卦·雜卦는 從來에는 孔子가 지은 것이라고 인정하며 그 價値는 論語에 負될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歐陽修)는 이 說을 根本的으로 믿지 않고 그냥 뒤집어 엮었다. 이밖에 左傳·周禮에 대하여도 懷疑의인 批評을 加하였다. 그는 北宋의 辨僞學者가운데의 첫째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다. 이밖에 王安石·蘇軾·司馬光도 모두 이와같이 解放의이고 自由研究의인 精神을 表現하고 古書도 懷疑하여 僞書를 識別한 成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새삼 詳論할 必要는 없다(原註:王安石이 春秋를 疑心하고 司馬光이 孟子를 疑心한 따위로)

南宋때의 朱熹는 南北宋의 道學을 集大成하였고 古書를 註解하였으며 學問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는 비단 옛의 注疏에 拘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吳棫이 古文尙書를 眞짜 아닐것이라고 懷疑한 論調를 大膽하게 稱讚하였다. 그들이 이러한 問題를 提起한 후 數많은 學者들의 研究를 거쳐 淸初에 이르러 閻若璩가 비로소 實證하였다. 閻若璩의 成功은 吳棫과 朱熹가 問題를 삼은 것에 依據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 점 朱熹의 辨僞學에 있어서의 價値를 볼 수 있다. 이밖에 또 그는 周禮와 先秦諸子에 대하여도 許多한 疑問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가 注한 책도 假짜가 있는 것을 免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가 後代의 懷疑·辨僞의 길을 터 놓은 것은 아무래도 南宋에서 처음인 것이다.

朱熹와 同時의 사람으로서 葉適이 있다. 그가 지은 習學記言序目은 經部의 數 많은 책에 대하여 屢 懷疑하고 있으며 易經의 十翼도 孔子의 著라고 믿지 않고 있으며 또 管子·晏子·孫子·司法·六韜·老子등의 諸子에 대해서도 價値가 많은 論辨이 있는데 그 觀察의 方法도 꼭 精確하다.

朱熹·葉適이후, 陳振孫이 지은 直齋書錄解題, 晁公武가 지은 郡齋讀書志와 王應麟이 지은 漢書藝文志考證은 비록 한가지 書目일 뿐이지만, 劉向의 別錄이나 劉歆의 七略과 같이 도리어 僞書에 대하여 懷疑의인 論

調과 問題를 많이 提起하고 있어서 後人들의 研究對象이 되고 있다. 勿論 그들이 言及한 것은 大部分이 前人的 說이지만 그들 自身이 發明한 것도 적지 않다. 이 세가지 책은 아직도 있으며 그들의 業績은 磨滅될 수 없는 것이다. 이밖에 朱熹의 弟子의 弟子인 黃震은 黃氏日抄를 지었는데, 內容에는 古文尙書를 辨僞한 條項이 꽤 있고 諸子로 辨僞한 條項도 있다.

이밖에 또 趙汝樸가 지은 周易輯聞은 十翼은 孔子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專門的으로 가려낸 것으로 歐陽修에 比하여 더욱 徹底한 것이다. 이상은 모두 南宋의 人物들인바 南宋의 辨僞學이 펴 發達되었음을 볼 수 있다.

元나라는 文化史로 보아 餘分에 屬하는 시대다. 如何한 學術에 대해서도 비교적 貢獻이 너무 적었는데 辨僞方面에도 이와 같으므로 省略한다.

明나라 初期의 宋濂이 지은 「諸子辯」한卷은 四十部의 子書의 眞僞를 가린 것이었는데, 從來의 人們은 往往 筆注나 文集, 或은 書目가운데에서 辨僞에 대한 몇句의 말을 했을뿐, 數 많은 책의 僞作을 가려낸 專門書는 없었다. 宋濂은 前人과 같지 않으니, 我們은 專門書로써 群書를 널리 밝혀 낸 것으로는 宋濂을 一人者라 말할 수 있다.

明나라 中葉의 梅賾이 지은 尙書考異는 僞古文尙書 二十五篇을 皇誦謚이 지은 것이라고 認定하고 있다. 朱熹이후 數百年間 尙書의 眞僞에 注意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와서 問題로 삼고 漸次로 科學的인 方法을 써서 僞作을 가려내어 後人들이 僞作을 가려내는 數 많은 方法을 개척했다. 비록 結論은 틀렸지만 그 價値는 역시 적지 않다. 이밖에 焦竑의 筆乘과 王世貞의 四部乙藥도 僞書를 가려내는데 대한 말들이었다.

明나라 末期에 나온 辨僞의 스승 胡應麟은 四部正僞를 지었다. 宋濂의 諸子辯는 文集속에 있는 長篇의 文章에 不過할 뿐으로 如前히 雜著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群書의 眞僞를 널리 가려내고 通用될 수 있는 方法을 發明한 것은 아님으로 아직 專門書로 칠 수 없다. 專門書로써 一切의 僞書를 辨別하고 原理와 方法이 있는 것은 胡應麟이 지은 四部正僞가 처음이다. 그가 가릴려고 한 책도 本來 많지 않으며 그가 眞僞를 가려낸 책도 完全히 信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經·史·子·集 四部의 書는 대부분 그의 研究의 눈길이 지났으며 後人들의 參考에 資하고 있다. 그가 그책의 첫머리에서는 辨僞의 필요성, 僞書의 種類와 來歷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小論의 앞部分에서 既述한 바와 같다. 나도 대략 그의 意見을 채택했다. 이책의 末尾에는 그 辨僞의 方法, 應用할 道具와 經過의 歷程

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많은 原理·原則을 發明하고 있으며 首尾를 갖추고 條理가 整然하고 있으니 참으로 辨僞學이 있는 以來의 첫 著作이다. 我們은 辨僞學을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一種의 學問으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清朝의 學術은 至極히 發達되었는데 이것은 一般學者들이 모두 科學的인 方法을 利用하여 古書를 整理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科學精神의 發動은 辨僞로부터 引導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중 辨僞에 가장 有名한 어느 閻若璩와 胡渭이다. 閻若璩의 가장 큰 功勞는 尙書古文疏證의 著作이다. 僞古文尙書의 案件을 가지고 朱熹·梅賾·胡應麟등은 懷疑는 하였으나 이를 決定짓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가지의 確證으로써 僞古文의 死刑을 正式으로 宣告하고 있다. 同時代의 惠棟도 古文尙書考를 지었는데 閻若璩의 結論과 같다. 이로부터 僞古文尙書를 믿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胡渭가 지은 易圖明辨은 宋朝에서 傳한 太極圖·河圖·洛書를 專門的으로 가려 낸 것이다. 이것들은 宋初의 僧·道士들이 여기저기서 주어 모아 어물어물이 묵한 것이며 周公·孔子·漢人·唐人들과는 아무런 關係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가지 方法으로 증명해냈다. 이리하여 宋朝以後의 이른바 易學이란 것은 안개로 一消하였다. 이 책과 尙書古文疏證은 現在의 立場에서 볼때 비록 粗雜한 곳이 꽤 많지만 事物의 眞相을 追求(實事求是)하는 그 精神은 實로 後代의 一般學者들이 科學的인 方法으로 研究하는 것의 先聲이 됐다는 점은 磨滅될 수 없는 업적이다. 다만 이와같이 한 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책은 「四部正僞」와 性質이 같지 아니하다. 前者는 이미 이루어진 原則과 發明된 方法을 利用하여 한 책의 眞僞問題를 가름내는 것인데 대하여 後者는 여러가지 僞書를 가려내고 거기서 發明된 여러가지 方法을 發明하고 여러가지 原則을 세운 것으로 모두 가장 有力한 僞書를 가려내는 것이다. 同時代에 「四部正僞」와 性質이 같은 두 개의 책이 있다. 하나는 萬斯同의 群書疑辨이고, 하나는 姚際恒의 古今僞書考이다. 萬斯同은 著名한 史家이다. 群書疑辨은 周禮·儀禮·左傳·易傳등에 대하여 모두 懷疑的인 論辨을 하고 있으며 그밖의 諸書도 그에 의하여 眞僞가 判別된 것이 꽤 많다. 그의 長兄인 萬斯大는 「周官辨非」를 지어 周禮가 僞書임을 가려냈는데 더욱 徹底한 것이었다. 古今僞書考의 體制는 四部正僞와 別差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려낸 僞書는 더 많다. 그가 究竟 四部正僞를 보았는지의 與否는 아직 決定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의 膽은 胡應麟에 比하여 몹씨 크다. 胡應麟

은 經解와 子·史集의 僞作을 가려냈지만 敢히 經의 本文은 의심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사양함이 없이 根本的으로 周禮·毛詩 등을 攻擊하였으며 그것이 僞作이라고 疑心했다. 그는 또한 九經通論을 지었는지, 이 책은 九經의 眞僞를 퍽 詳細히 가려냈다. 알타깝게도 이미 殆半이나 잃고 말았다. 古今僞書考는 九經十二部의 책의 眞僞를 가려낸 것이다. 비록 어떤것은 그렇게 重要치도 않은 것을 그는 研究하였고 또한 많은 原則을 發見하지도 못하였으니 四部正僞에 比해서 價値가 적은듯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四部正僞와 함께 가장 重要的한 辨僞의 書이며 또한 우리가 參考치 아니할 수 없는 著書인 것이다. 다행히 책들은 분량이 대단히 적은 것으로서 한 이틀쯤이면 讀破할 수 있고, 讀破하고나면 僞書의 輪廓과 識別方法을 알 수 있다. 自己의 頭腦를 訓練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方法을 利用하여 한 책의 眞僞를 가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尙書古文疏證과 易圖明辨은 모두 우리들에게 퍽 도움이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閻若璩·胡謂·萬斯同·桃際恒·惠棟·다섯 사람은 淸初의 辨僞學者의 代表的인 人物이라 할 수 있다. 乾隆(1736~1795 淸高宗弘曆의 年號) 때까지도 이러한 辨僞의 風潮는 如前히 퍽 盛하였다. 그중 孫志祖는 家語疏證을 지었고, 范家相은 家語證語를 지었는데 이로써 孔子家語는 王肅이 僞造했다는 公案이 嚴肅히 宣布되었다. 家語疏證의 體制는 尙書古文疏證과 같은데 이것은 모두 漢志·儒林傳의 『疏通證明之』의 뜻이다. 이러한 作業은 古文尙書의 虛僞를 가려내다가 여기에 연고하여 尙書의 孔安國注, 論語의 孔安國注, 孝經의 鄭玄注에 까지 關連되어 漸次로 이들 모두가 假짜라 함이 밝혀졌다.

同時代에 나왔던 肅은 辨僞學者는 考信錄을 지은 崔述이다. 그는 春秋이후의 諸子百家의 傳說의 古事를 一一히 살피어 어느것이 眞짜이고 어느것이 假짜라는 것을 가려냈으므로 古史의 眞相은 傳說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게 되었다. 그는 비록 古史에 있어 虛僞의 事實을 가려내는 것을 專門的으로 했지만 그길에 僞書를 가려내는 일도 했다. 그는 비록 五經·論語·孟子를 迷信하고 있었지만 그 一小部分에 대해서는 역시 疑心을 품었다. 그가 辨僞하는 方法은 『六藝에 考證한다』는 것이외에, 奧妙한 秘法이 아직도 많이 있었다. 그는 作僞의 原因을 解釋하여 必要한 條件을 求할 수 있었다. 더욱이 모든 점에 懷疑를 가지고 모든 일에 眞實을 求하는 그의 정신은 사람들의 叡智를 開發한 점이 실로 적지 않다. 그가 남긴 책은 百年間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다가 最近에 와서야 비로소 刊行되어 史學界

에 큰 影響을 끼쳤다.

嘉慶(1796~1820, 淸仁宗 顛災의 年號)이후 辨僞의 方向은 좀 변했다. 西漢의 古文·今文의 爭論은 西漢末 諸儒의 調和를 거쳐 이미 千餘年동안이나 잠잠했지만, 이때에 이르러서 忽然히 또다시 灑覆되었다. 이灑覆에 있어 가장 有力한 사람은 劉逢祿·魏源이다. 劉逢祿은 公羊學을 研究하여 春秋公羊傳을 信憑할 만하다고 認定하고 左氏傳을 僞書라고 疑心하였다. 그는 左氏春秋考證을 著述하여 春秋의 古文家에 대해 叛旗를 들었다. 魏源은 詩古微를 著述하여 毛詩를 믿지 않고 齊·魯·韓 三家를 받들었다. 그는 또한 書古微를 著述하여 僞古文尙書가 가짜라는 것을 認定하지 않을 뿐 아니라 根本的으로 漢書, 藝文誌의 「古文尙書十六篇」이란 것이 터무니 없는 거짓이라고 疑心했다. 그들이 提起한 問題는 모두 淸初와는 다르다. 王肅이 古文尙書를 僞造하였다는 것은 淸初에 이미 解決이 되었고 따라서 王肅이 지은 數 많은 僞書도 가려냈다. 그러나 劉歆이 僞書를 만들고 五經을 顛倒시켰고, 劉逢祿魏源에 와서야 비로소 問題가 提起되었으니 淸初에 比하여 더욱 進歩한 것이다.

淸末 나의 恩師 康南海(康有爲이름) 선생은 新學僞經考를 지으시면서 西漢부터 淸에 이르기까지의 今文古文的 論爭에 총결산을 내렸는데 西漢에서 새로 나온 古文의 書籍은 전부 假짜라고 하여 劉逢祿·魏源을 계승하여 이를 集大成하였다. 古文의 書籍 가운데 大部分即 周禮·左傳·毛詩·毛詩傳과 劉歆이 고친 책들은 根本的으로 흔들렸으므로 當時의 思想界도 역시 이에 따라서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當時에 그분을 괴짜로 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분은 維新變法을 提起하였으므로 물론 人心을 흔들었던 것이지만 그분이 또 歷代로 神聖不可侵하게 傳해 내려 온 古經을 打倒하였으니 더욱 사람들의 마음은 激變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淸末에 그분과 比較될 사람이 다시 없다.

最近 疑古에 가장 勇敢하고 辨僞에 가장 強力한 사람은 두 사람을 대표로 들 수 있다. 한사람은 胡適이며, 또 한사람은 錢玄同이다. 우리들은 辨僞學者의 研究手段이 眞實로 日益 發展되어 나감을 볼 수 있다. 康南海선생은 劉逢祿·魏源에 比하여 이미 進歩했지만 胡適은 康南海선생에 比해서 더욱 進歩되었다. 錢玄同에 이르러서는 疑古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疑古」(錢玄同의 號는 疑古)고, 이점 胡適에 比해서 더욱 徹底하였다고 이름을 고치기까지 했다. 그들의 業績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懷疑의인 精神은 그들의 鼓吹로 말미암아 學術界에 널리 들어 왔다.

나의 경우는 비록 疑古에는 勇敢하지만 이들에 比해

서 아직 멀었다. 내가 타고난 性格이 한편으로는 아무리 疑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保守性을 띠고 있다. 나는 소시적에 康海南선생이 新學偽經考를 짓는 일을 도우면서 비록 그분이 思想을 啓發시켜 주신 도움이 적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어떤 方面에선 너무 독단적인 점이 없지 않아 疑心했고, 그 한 部分을 修正해 보려고 생각했다. 最近 胡適과 疑古 錢玄同等이 科學的인 方法과 精神으로써 懷疑할 餘地 가 없는 數 많은 問題를 提起한데 대해서 나는 비록 同感할 수는 없지만, 最少限 有力한 假定으로는 認定하며 긴 세월의 研究를 거쳐 어느날엔가는 實證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錢玄同이 疑古로 이름을 고친것은 疑古와 辨偽를 職業的인 性質로 고친 점이 있으며 너무 지나치게 가려내고 또 너무 지나치게 의심했다는 評을 免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들은 그들이 辨偽한 結論에 대해서 完全히 贊成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精神은 하여튼 貴한 것이다. 그들이 辨偽한 結論이 만약 틀렸다면 自然 다른 사람들이 刷新하게 될 것이니 참된 事實이나 참된 書籍이 畧하게 될 것이고 만약 틀리지 않았다면 거짓된 事實과 거짓된 書籍은 다시는 聞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약 참다운 것을 追究하기 위해 努力한다면 이러한 辨學의 學達은 크게 希望이 있는 것이다.

第四章 偽書識別 및 年代考證의 方法

四部正偽의 末尾에 辨偽를 가리는 여덟가지의 法이 있다.

偽書를 조사하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七略을 調査함으로써 그 根源(源)을 보고
2. 여러 藝文誌를 調査함으로써 그 系統(緒)을 보고
3. 同時代의 著書를 조사함으로써 그 適合性(覈)을 보고
4. 異時代의 著書를 調査함으로써 著者(述)을 보고
5. 文章을 調査함으로써 그 體制(體)를 보고
6. 事實을 調査함으로써 그 時代性(觀)을 보고
7. 著者를 調査함으로써 그 依託(托)함을 보고
8. 傳受한 者를 調査함으로써 그 人物(人)을 본다.

이 여덟가지를 調査하면 古今의 偽書는 숨김이 있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偽作을 가려 낼 수 있는 몇개의 原則으로서 大槪가 맞는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의 方法을 採擇하여 이를 두 系統으로 歸納한 것이다.

1. 傳授 및 統緒에 대한 識別.
2. 文義 및 內容上에 대한 識別.

하나는 책의 來歷에 置重한 것이요, 하나는 책 自體에 대하여 置重한 것이다. 前者는 四部正偽의 1·2·7 8의 方法과 가깝고, 後者는 四部正偽의 3·4·5·6 네 方法과 가까우나 詳略과 重輕은 5:1로써 같지 않다.

1. 傳授 및 統緒上으로부터의 識別: 여기에는 여덟가지의 方法이 있다.

첫째, 옛날의 藝文志에 記錄이 없으므로 그것이 偽作 혹은 疑心스러운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藝文志, 동시에 가장 오래된 書目은 西漢末 劉歆의 七略과 東漢初 班固의 漢書 藝文志(略稱 漢志)이다. 漢志는 七略에 依據하여 만든 것이며 서로의 時代가 꽤 가까웠다. 그러므로 七略은 비록 없어졌다지만 漢志가 충분히 그 대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古書를 研究하고자 할때 秦始皇以前의 事情과 數目에 대해서는 考證할 方法이 없다. 그것은 古書의 殆半이 秦始皇과 楚霸王에 依하여 燒失되었기 때문이다. 西漢一代는 부지런히 古書를 求하였기에 民間에 숨겨 있던 書籍이 모두 皇帝의 內府——中秘——로 들어 갔다. 劉歆은 中秘의 書籍들을 編次하고 七略에다 記述하였다. 그는 假짜로 認定되어 劉愛하기 싫어 남겨둔 것은 있었지만 어떤 책이든지 아니 著錄된 것은 없다. 우리가 三代(夏·商·周)와 先秦의 書籍들을 찾아 보려면 漢志를 信憑하는 이외에는 달리 믿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劉歆이 보지 못하던 책이 數百年 뒤에 갑자기 나타난다는 일은 決코 있을 수 없다. 이 大原則의 唯一한 例外는 곧 晉나라때 汲郡의 魏襄三素에서 發見된 책으로서 確實히 劉歆이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이며 漢志에도 記錄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들은 汲冢書를 除外하고는 어떤 古書고간에 그것이 다만 西漢以前에 나온 것이라면 漢志에 이 書名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첫째 標準으로 삼아야 한다. 萬一 없다면 이것은 곧 偽書이거나 疑心스러운 책일 것이다.

가령 子夏의 易傳은 漢志에는 없는데 隋書經籍志(略稱 隋書)에 문득 나타난다. 漢人이 보지 못하던 책을 어찌 六朝人이 能히 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子貢의 詩傳은 漢志·隋志와 宋나라때의 崇文總目에 모두 없던 것이 明末에 갑자기 나타난다. 從前에는 어디에 갈망되어 있었던 말인가? 또한 連山·歸藏같은 것은 漢志엔 두책 모두 없는데 문득 隋志에 歸藏이 나오고 唐書 藝文志(略稱 唐志)에는 連山이 나오고 있다. 萬一 夏·商때에 果然이 두책이 있었다면 무슨 일로 漢志에는 記錄되어 있지 않았을까? 偽古文尙書·孔安國傳은 漢志와 史記·漢書의 列傳에 아무런 言及이 없었고 東漢末의 馬融·鄭玄과 晉初의 杜預도 보이지 않으니 가령 孔安國이 果然 이 책을 지었다면 어찌 同時人으로부터

晉初에 이르기까지 繼續 보이지 않다가 東晉人이 도모혀 볼 수 있던 말인가? 또한 鬼谷子는 漢志엔 없는데 隋志에는 있으며, 充倉子는 漢志와 隋志에는 모두 없는데 崇文總目에 문득 나타난다. 이와같이 처음에 記錄되지 아니하다가 뒤에 문득 나타난 것은 모름지기 懷疑하면서 그 僞作與否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둘째, 전의 藝文志에는 收錄되고 後志에 未載된 것으로서 이는 僞作 또는 疑心스러운 것으로 決定하는 경우: 例컨대 尹關子는 漢志에는 九篇이 있다고 記錄되어 있는데 隋志에는 없다. 漢志에는 비록 있을지라도 眞僞는 問題인데 六朝에 亡佚되었으므로 隋志에는 收錄되지 않고 있다가 後에 唐末宋初에 갑자기 이 책이 나타났다. 萬一 原書가 亡佚되지 않았더라면 隋의 牛弘은 萬種書를 能히 볼 수 있었는데 關尹子는 볼 수 없었던 말이 되면, 唐朝 數百年間에 아무도 關尹子를 볼 수 없다가 宋初에 이르러서 또다시 처음으로 發見되었다는 말이 된다. 누가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책은 당연히 僞書인 것이다.

셋째, 今本과 옛날 藝文志에 기록된 卷數, 篇數가 같지 않은 것으로부터 이를 僞作이거나 疑心스러운 것이라고 決定하는 경우: 여기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減少된 경우요, 하나는 增大된 경우다. 감소된 것은 漢志에는 家語 27卷이라고 記錄되어 있는데 唐志에는 王肅이 注를 단 家語十卷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顏師古는 漢志注를 달기를 「只今の 家語가 아니다」라고, 이로써 王肅이 注한 家語는 絶對로 漢志에서 말하는 原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漢志에 이미 鶡子 22篇은 後人들이 假託한 것이라고 斷定되어 있는데 今本 鶡子是 1卷 14篇으로 되어 있고 公孫龍子是 14篇이라 되어 있는데 今本은 겨우 6篇으로 되어 있고, 慎子是 24篇이라 되어 있는데, 唐志에는 10卷으로, 崇文總目에는 37篇으로 되어 있고, 今本에는 겨우 5篇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모두 時代가 近世로 올수록 점점 篇數가 줄어 들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後에 亡佚된 것이라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時代가 近世로 올수록 점점 篇數가 불어 나는 경우이다. 이것은 僞書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 例컨대 鶡冠子는 漢志에 겨우, 1篇으로 되어 있는데 唐나라때에 韓愈가 본 것은 이미 19篇으로 불어 난 것이 있고, 宋나라의 崇文總目에는 오히려 30篇으로 記錄되어 있다. 其實은 漢志가 이미 鶡冠子는 後人의 假託한 書라고 밝혀 말한 것이다. 韓愈가 읽은 것은 또한 이미 漢志에 기록되었던 原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僞作中的 僞作이었으며 崇文總目中에 記錄되어 있는 것은 韓愈가 읽은 것이 아니니 더욱이 僞書中的 僞書에서 다시 僞作

이 나온 것이다. 또한 文子是 漢志에는 9篇이 있다고 記錄되어 있는데 馬總의 意林에는 오히려 13篇으로 말하고 있다. 增減된 것은 篇數가 이미 틀리니 內容도 반드시 變했을 것이다. 이런 것은 僞書라고 斷定할 수 있다. 적어도 懷疑를 받아 다시금 다른 方法으로 그 眞僞를 定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옛날의 藝文志에 著者名이 없었던 것을 後人들이 마음대로 붙인 姓名은 虛僞라고 決定하는 境遇: 文子是 漢志에 著者名이 없었는데 馬總의 意林에서는 春秋末葉의 范蠡의 스승 計然이 지은것이라 말하고 또 計然의 姓은 章이라 하였다. 漢人이 알지 못하던 것을 唐人은 도리혀 알고 있는 셈이다. 其實은 文子 自體가 僞書로서 淮南子의 나머지를 竝結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더구나 아무런 相關없는 者를 더 붙이는가?

다섯째, 옛날 藝文志나 혹은 注家가 僞書라고 明言한 것을 믿는 경우: 漢志에서는 이미 많은 책에 대해서 「依託」한 것이라고 注를 밝혀 냈다. 여기서 「依託」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어도 假짜로 識別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種類의 書籍의 殆半은 지금 存在하지 않으며, 지금 存在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僞作이다. 또한 顏師古는 漢志의 孔子家語에 註하기를 「只今の 家語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반드시 所見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當然히 그가 疑心하고 있는 僞書를 믿을 수는 없다. 또한 隋나라 衆經目錄은 疑惑類에서 大乘起信論을 編하면서 「眞諦錄을 고루 조사해 와도 이러한 책은 없다」라 하였다. 法經은 隋나라의 衆經目錄을 著할때, 眞諦의 죽음과는 距離가 30년도 못되니 적어도 이책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證明되고 있다.

여섯째, 後人이 某書는 「某時에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때의 사람들이 그책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 이로부터 그책이 僞作이라는 것이 斷定되는 경우: 僞古文尙書 16篇같은 것은 西漢 武帝時에 나왔다고 말해지고 있다. 즉 孔安國은 이미 傳을 만들었고, 東漢末의 馬融 鄭玄이 또한 註를 지었다. 그러나 事實은 우리들이 西漢人이 尙書의 말을 引用한 것을 보면 모두 僞古文 16篇속에 있지 않은 것이며 馬融의 尙書注는 비록 지금 失傳되긴 했지만 現在도 아직 一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그 16篇을 注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지금 傳해지는 僞古文 16篇속에서 늘 佚書를 引用하고 있다. 馬融 鄭玄以前의 사람들은 지금 傳해지는 僞古文尙書는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꼭 三國以後의 사람이 假짜로 만든것에 틀림없다. 비단 이와 같지 않을 뿐 아니라 晉初의 사람이 杜預는 左傳을 注하는데 있어 늘 佚書에서 引用하고 있지만 尙書에 대해서는 아

무런 말이 없다. 僞古文尙書는 그 以後에 나타난 것이다. 假짜를 만든 사람은 他人을 속이려고 西漢時에 나타난 眞書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 믿겠는가.

일곱째,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미 많은 問題가 發生되었거나 或은 어떤사람에 依해 僞作이라고 考證해 낸 것은 우리들도 당연히 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경우 : 張霸가 僞造한 百兩尙은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僞書라는 것이 알려졌다. 또 尙書, 奈誓篇은 河間의 女子에게서 나온 것인데 馬融이 當時에 이미 懷疑했다.

이러한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 우리들은 尙書 注意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책의 來歷이 曖昧하여 僞作으로 看倣하는 경우 : 이른바 來歷이 曖昧하다는 것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책이 나온 方式이 그러한 것이요, 둘째는 책이 傳授된 方式이 그런 것이다. 前者는 古文尙書 같은 것으로 壁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壁은 누구의 壁인지를 알 수 없다. 어떤사람들은 秦始皇이 焚書하자 伏生이 壁中에 藏書했는데 漢朝에 이르러서 藏書의 禁을 解除하자 壁을 부수고 책을 꺼냈더니 이미 많은 部分이 損되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孔子 自身이 將來에 있어 秦始皇이 그의 책을 태울 것을 先知했으므로 壁中에 미리 넣어두었는데 뒤에 漢·魯共王이 孔子의 집을 부술 때 壁속에서 古文尙書·禮記·論語·孝經등의 책을 發見했다는 것이다. 이 두 說은 모두 漢書에서 나왔는데 竊경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는

가 이와같이 책이 나온 方式이 分明한 것이나 來歷이 不明한 것이 꼭 많다. 즉, 尙書의 舜典같은 것은 먼 옛날에서 얻은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其實은 堯典의 下半을 나누어서 여기에 28字를 덧붙여 다른 한篇을 만든 것에 不過하다. 또 張湛이 註한 列子같은 것은, 前面에 한篇의 序文이 실려 있었는데 이는 五胡十六國 때에 그의 外祖인 王家로부터 얻은 孤本으로서 後에 楊子江을 건너 南쪽으로 오다가 5篇을 잃고 그 뒤에 또 王씨성 가진 사람으로부터 3篇을 얻고 그 뒤에 또 어떻게 해서 두篇을 얻었다고 말하여 참으로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 列子가 진짜라면 어찌하여 西晉人들은 모두 이책의 存在를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와같이 이상하게 나온 책은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 그 이상한 點에서 確證지어도 되는 것이다.

傳授가 曖昧한 경우는 꼭 많다. 毛詩의 小序의 傳授 같은 것은 여러가지 異說이 있다. 어떤 이는 子夏에서 五傳되어 毛公에 이르렀다 하고, 어떤 이는 子夏에서 八傳되어 毛公에 이르렀다 하고, 어떤 이는 衛宏에 의해서 傳해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와같이 傳授의 系統이 複雜한 點에서 그 이전에는 반드시 무슨 病弊가 있다는 것을 看取할 수 있다. 이렇게 책이 傳授되는 過程과 처음 나타나는 方式이 曖昧한데서 우리는 모두 그 homes을 찾아 낼 機會를 얻는다. 여기서 追究해 나간다면 古書의 眞僞는 識別될 수 있다. (次號 繼續)

스텝 매뉴얼 例集

A5版 · 220面 · 模造紙 · 洋裝 (會員)720원 (非會員)900원

우리 나라 圖書館에서는 스텝 매뉴얼을 作成하고 있는 圖書館이 거의 없다. 따라서 各圖書館의 業務는 統一性과 一慣性을 缺하고 있어 圖書館의 機能을 弱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스텝 매뉴얼 例集을 編刊 普及시킴으로써 圖書館運營의 現代化를 促進코자 한다.

非圖書資料의 整理

A5版 · 240面 · 模造紙 · 洋裝 (會員)1,000원 (非會員)1,250원

新聞, 雜誌, 팸플릿, 필름, 슬라이드 등 非圖書資料는 圖書館資料로서 大端히 重要な 位置를 占하고 있다. 本書에는 이들 資料의 整理方法 및 保管利用에 관한 說明이 具體的으로 收錄되어 있다.